

만전당 홍가신의 생의 자취와 삶의 지향

송 기 섭*

<目次>

I. 서론	III. 삶의 지향
II. 생의 자취	1. 자연에 의지하고 싶은 삶의 謳歌
1. 만전당의 탄생과 스승의 만남	2. 求道에 대한 갈망
2. 정직과 원칙적인 행정 구현	3. 나라를 향한 충정
3. 청렴성과 혁신의 정치	IV. 결론
4. 變亂에 대한 대처	

<국문 초록>

만전당 홍가신은 삶을 영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분이다. 기축옥사, 임진·정유왜란, 이몽학의 난 등 大患亂의 중심에 있었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난과 身病으로 점철된 생애였다. 이처럼 공적, 사적으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훌륭한 자취를 남기고 있는데, 관리로서의 혁신적 행정력과 善治는 물론 임진왜란 시 의병활동, 이몽학의 난 평정 등이 이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만전당의 자취에서 그가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을 조명해 보면 그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만전집』을 비롯하여 『선조실록』 등 여러 기록에서 정직성, 청렴정신, 충정심이 읽혀지고 있으며, 그가 남긴 詩文에서 자연귀의에 대한 욕구, 求道에 대한 갈망, 나라를 향한 충정으로 그가 지향했던 삶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를 역사적 기록과 그의 시문을 根底로하여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진다.

첫째, 만전당의 삶의 자취에서 ①花潭 서경덕에서 翫靜 민순으로 이어지는 도통을 만전당이 계승하였다. ②정직을 신념으로 한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한

* 선문대학교 강사 / sk4423@naver.com

법집행을 구현하고 있다. ③그는 평생을 청렴한 삶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가 벼슬하고 있는 동안 보여준 혁신적 행정은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하다. ④기축옥사, 임진왜란, 이몽학의 난 등 역사적으로 큰 사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충정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둘째, 그의 삶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의 시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①벼슬길에 있으면서도 늘 자연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구가하고 있다. ②學道에 대한 갈망이 主靜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③군주에게 荒言을 서슴지 않은 것은 충을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만전당의 정직, 청렴, 荒言(직언), 귀거래, 求道 그리고 충정심은 그의 私意私慾이 없는 정신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정신은 화담, 습정으로부터 이어받은 주정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로써 만전당은 생활 자체를 主靜에 바탕을 두고 이를 실천한 결과이다.

【주제어】 홍가신, 만전당, 선조, 이몽학, 주정설

I. 서론

晩全堂 洪可臣(1541, 중종36 ~ 1615, 광해군7)은 康陵參奉을 시작으로 개성유수로 벼슬살이를 마칠 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분이다. 즉 국가적으로는 己丑獄死, 壬辰·丁酉倭亂, 이몽학의 난 등 大患亂의 중심에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가난과 身病으로 삶을 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올곧은 정신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훌륭한 자취를 남겼는데, 이를 역사적 기록과 그의 문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각 고을 수령으로 부임할 때마다 혁신적 행정과 善治로 인한 고을 백성들의 칭송, 임진왜란 시 의병활동, 이몽학의 난 평정 등이 이것이다.

또한 문장과 학문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하다. 당시 송강 정철, 가운 최경창, 월사 이정구 등 당대 최고의 문장가, 시인들과 교류하였으며, 花

潭 徐敬德 → 習靜 閔純으로 이어지는 道通을 이어받아 평생 主靜의 學을 실천하며 살았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만전당의 생애를 헤아려 본다면 그의 학문과 행적에 대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朴乙洙의 『만전당 홍가신연구』(글읽는 들) 외에는 그 연구를 찾기가 힘들다. 이에 앞으로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져 우선 『만전집』과 만전당선생 문집 복간위원회에서 찬한 『만전당 홍가신선생 문집』, 그리고 『선조실록』 등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만전당이 태어나 생애의 자취를 찾아 사안별로 묶어 살피고, 그의 인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향점을 더듬어 기술해 보고자 한다.

II. 生의 자취

晩全堂은 선조 4년 康陵參奉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행정가로서 그가 부임하는 곳마다 그 지역의 폐단을 고쳐서 백성들 삶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역사적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연히 대처하여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부여현감, 안산군수, 수원부사, 병조판서로 부임해서 보여준 혁신적 행정과 사림파의 분열(1575), 기축옥사(1589), 임진왜란(1592), 이몽학의 난(1596) 등의 사건과 마주치면서 보여준 슬기로운 대처가 이것이라 하겠다.

<표1> 만전당 생애의 역사연표

년도	사건	주요내용	비고
1567	선조즉위		선조4년 강릉참봉
1575	사림파분열★	동인과 서인으로 분파	동인으로 분류

1589	기축옥사 ★	정여립의 난, 정여립과 연루된 많은 동인들이 희생된 사건. 서인집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원부사직에서 파직
1592	임진왜란 ★	일본의 풍신수길이가 조선을 침략하여 일어난 전쟁	남양에서 향군을 조직하여 의병활동
1595	이몽학의 난★	이몽학이 불만에 찬 농민들을 선동하여 충청도 일대에서 일으킨 반란.	홍주목사로 이 난을 토평. 청난원훈(1602)
1597	정유재란 ★	일본이 임진왜란의 정전회담 결렬로 재침공, 이듬해 연말까지 지속됨.	홍주목사로 임무수행. 1599년 임기를 마침.
1608	광해군 즉위	대동법 실시	「辭祿筭」을 립(1609)
1613	계축옥사	대북파가 영창대군 및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일으킨 옥사, 소북파 축출.	

★는 만전당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사건

이처럼 만전당은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축옥사, 그리고, 두 번의 倭亂, 그리고 이몽학의 민란은 나라의 존립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엄청난 사건들 이었다. 이런 波瀾萬丈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전당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만전당의 탄생과 스승의 만남

만전당은 장원서 장원인 아버지 洪晄과 어머니 홍양 신씨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축년(1541) 7월 17일에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병이 몹시 중하여 그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별세하였다. 이런 관계로 집안이 어수선하여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출중하기가 보통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한다.

태어난 지 겨우 여덟달 만에 걷고 말을 배워 지각이 보통 아이와 달랐다. 갓 난아이 때에 어느 사람이 장구 치는 것을 보고 한 번 쳐보고 싶어 하므로 시험 삼아 주었더니 절조에 맞지 않은 것이 없어 좌중이 놀라고 탄식했다. 여덟 살 때에는 先考를 따라 산불구경을 갔다가 先考가 명하여 글을 지으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조나라 성벽에 갑자기 한신의 깃발이 세워졌다.”고 하니 선고가 기뻐 좋아하였다.¹⁾

그는 어릴 때부터 지각능력이 뛰어났으며, 8살 때 이미 詩句를 읊을 정도였다. 그가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한 것은 草堂 許曄(1517~1580)을 스승으로 모시면서부터인데, 나이가 15세가 되기 전, 이미 의젓한 행동에 小學, 四書, 二經, 古文集을 통했다. 이에 草堂은 晩全堂에 대하여 “고인의 풍모가 있다.”²⁾고 하였으며, 퇴계선생도 “학동들 중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묻고 한참동안 눈여겨보았다.”³⁾고 한다.

그 후 習靜 閔純(1519~1591)의 문하에 들어가 좀 더 체계적인 학문을 전수받는다. 특히 그가 ‘求道’에 대하여 갈망할 때 당시 예학의 석학이었던 습정을 만났는데, 그의 「祭涇村閔先生文」에서 愛弟尊師의 관계가 짐작이 된다.

선생의 문에 출입한 지 이십 년이 넘었으나, (시속에) 빠지고 (세태에) 절망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달게 여겼다. 여기에 막히고 어리석음이 더해져 세상에 서 알아주는 바가 적었는데, 유독 선생께서는 분에 넘치게 도를 칭찬해 주셨다.⁴⁾

-
- 1) 홍경신,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481(『만전집』 부록, 「行狀」), “生纔八月 能步學語 知覺異凡兒 稚時見人擊腰鼓 欲擊之 試授之 無不應節 一座驚歎 八歲 從先考觀山火 命賦之 對曰 趙壁忽豎韓信幟 先考喜善之.”
 - 2) 위의 글, p.489, “許草堂 聞之曰 頗有古人風”
 - 3) 위의 글, p.482, “第幾坐黑衣者誰也 目之良久”
 - 4) 洪可臣,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188(『만전집』 권 2, 「祭涇村閔先生文」), “出入門牆 餘二十年 汨沒摧頽 甘於自棄 加之迂拙 世所寡記 獨被先生 稱道過實”

여기에서 晩全堂의 학문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汨沒摧頹’와 ‘迂拙’을 극복한 晩全堂의 노력과 習靜의 해안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習靜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며, 그의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하는 것인데, 「右通禮習靜閔先生墓碣銘」에서 그의 성품과 교육방식이 그려져 있다.

학도들이 멀리서 모여 들었으나 선생은 일찍이 자기가 스승이라고 자처하지 않고 분수에 따라 문답을 해서 성심껏 일깨워 주고 정성스럽게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중략> 회옹이 연평 이 선생을 칭찬하는 말에 “온화하고 겸손하며 신중하고 후덕해서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어도 오래도록 그의 한계를 보지 못했으니 울연한 군자로다.”하였는데, 어쩌면 선생의 덕행이 이와 더불어 하나하나가 서로 부합하고 있다.⁵⁾

그의 성품에 대해서는 ‘溫謙愨厚’함을, 그의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스승이라고 자처하지 않고 제자들의 분수에 따라 묻고 답해서 스스로 일깨우게 했다. 여기에서 晦菴(朱熹)과 延平의 관계를 자신과 습정의 관계에 빗대고 있는데, 이는 延平和 습정의 성품적 동일성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晦菴이 延平을 만나고서 학문이 平實해져 드디어 千載不傳의 도통을 修得할 수 있었듯이⁶⁾ 자신도 습정을 만나 그러했다는 의미일 게다. 또한 이는 만전당의 학문이 화려한 것을 없애고 실상으로 나가서 操存⁷⁾하고 행실을 닦는 행태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학문

-
- 5) 洪可臣,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산지부, 2006, p.425(『만전집』 권 5, 「右通禮習靜閔先生墓碣銘」), “學徒自遠坵集 先生未嘗以師道自處 而隨分問答 誠心誘掖 惓惓不已焉 <중략> 晦翁讚延平李先生之言曰 溫謙愨厚 人與之處 久而不見其涯 鬱然君子人也 何先生之德行 與此一一相符也”
- 6) 佐藤仁, 「이퇴계와 이연평에 대하여」, 『퇴계학보』68호, 퇴계학연구소, 1990, p.245.
- 7) 『孟子』의 「盡心上」에 나오는 말이다.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즉 신중하게 본성을 지킨다는 의미이다.
- 8) 박을수, 『晩全堂洪可臣研究』, 글읽는들, p.12.

적 계보가 平實한 행태의 학문을 취하고 있는 화담 서경덕으로부터 습정 민순으로 이어지는 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2. 정직과 원칙적인 행정 구현

晩全堂은 생의 역정에서 정직한 성품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구현한 기록이 많다. 그는 선조 4년 康陵參奉으로 천거된 후 선조 6년에 치룬 謁聖試에 응시하였는데, 당시 과거시험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이 심했던 것 같다. 이 때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데에서 그가 정직한 품성의 소유자임을 느끼게 한다.

일찍이 李大成 潑의 형제와 함께 謁聖試를 보다가 글을 다 짓지 못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하였다. 李洁이 우리나라 表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취하여 공에게 시간을 맞추어 이 글을 새롭게 고쳐 바치라고 권했으나 공이 응하지 않았다. 또 시험이 마감된 후 어느 친구가 잘 아는 하인을 시켜 이미 거둔 과권(답안지) 속에 끼워 넣기를 도모하고자 함에 공이 말하기를 “출세는 선비의 대관령인데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하고 끝까지 듣지 않았다.⁹⁾

李潑(1544~1589)과 李洁 형제는 만전당과 습정 문하에서 동학이었으며, 후에 鄭汝立(1546~1589) 모반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인생의 고락을 함께하는 사이였다. 그들이 科試 수험 중 科題와 관련되는 表文을 주며 적당히 교정해서 낼 것을 권했지만 晩全堂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또한 시험이 끝난 후 科卷 속에 만전당의 답안지를 슬쩍 끼워 넣자는 제안에도 一鍼을 가하고 있음에서도 정직성이 잘 드러난다.

사헌부 지평으로 있을 때에도 공정한 일처리를 엿볼 수 있는데, 그의 정직함을 알 수 있다.

9) 홍경신,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484(『만전집』 부록, 「行狀」), “嘗與李大成兄弟同赴謁聖試 篇未終而刻幾盡. 小李取東表相類者 勸公及時點化以呈 公不應 又有一友欲使相知下人 圖置收卷中 公曰 出身 士之大關嶺 其敢如是乎 終不聽”

조원이 이조 좌랑이 되어 私情을 따르는 허물이 있고 또 조원이 경솔하여 인망이 없었으므로 홍가신이 먼저 조원에게 말하기를, “公을 섬기려면 私를 돌볼 수가 없는 것이다. 군이 실수가 많으니 내가 私情을 따름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리하여 조원을 논박하여 遞職하게 하니 공론이 쾌하다 하였다.¹⁰⁾

만전당과 趙瑗(1544~1595)은 어릴 때부터 매우 절친했던 사이임에도 탄핵함으로써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관계보다 우선 시하여 그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또 그가 漢城右尹과 金吾堂上을 겸하고 있을 때의 사건에서도 그의 정직함을 찾아볼 수 있다.

이때 황정욱이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 대하여 臣이라 일컬었다고 하여 귀양을 갔는데, 그의 아들이 상소하여 고향으로 가기를 빌었다. 임금이 金吾에 명을 내려 (이를) 의논하여 아뢰라 함에 여러 당상들이 모두 그의 소원대로 하려 했지만, 공은 홀로 그 죄가 倫紀에 관계된다고 하여 여기에 異議하여 일이 마침내 시행하지 못했다.¹¹⁾

이때 姜·文·蔡, 세 사람이 대간으로서 銀을 뇌물로 받고 잡혀 간혀서 심문을 받았는데, 다른 堂上들은 그들을 풀어주려 했으나 공이 홀로 고집하여 옳지 않다 하고 말하기를 “뇌물 받은 관리를 용서하는 것은 법에 옛날부터 교훈이 있다.”하였다.¹²⁾

君上之言이라 할지라도 원칙에 위배되면 단호히 거절하고, 公事に 있어서도 친분의 여하를 떠나 要不要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10) 李珥, 『石潭日記』下, 「萬曆六年戊寅」, 고전번역원, 1971, “而瑗爲吏曹佐郎 有循私之說 且瑗輕躁非人望 故可臣先謂瑗曰 公事則不顧私 君多所失 我不可循情不効. 乃駁瑗遞職 公論稱快”

11) 洪경신,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500(『만전집』 부록, 「行狀」), “時黃廷彧以被虜稱臣竄謫 因其子上疏乞歸田里. 上下金吾議啓 諸堂上皆欲依願 公獨以爲罪關倫紀立異 事竟不施”

12) 위의 글, p.500, “時姜文蔡三人 以臺諫受賂銀 被囚拷訊 他堂上欲解之 公獨牢執不可曰 不貸贓吏法 古有訓矣”

있다. 이처럼 만전당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 해야 할 것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일을 집행하였으며 누구에게라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만전당은 나라에 대한 충정이 또한 대단하였다. 그가 기축옥사로 파직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賊退後封事」를 올렸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홍주목사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뒤 재차 「應求言封事」를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다.

지난 계사년 가을에 신이 어리석고 천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외람되게 거친 글을 올려 국가의 中興과 更化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전례에 따라 泛下(봉하)하심으로 마침내 한 가지 일도 시행함이 없었으니 오늘날 걱정하는 바는 신하가 없는 것이 아니오라 비록 있어도 그 말을 능히 쓰지 못하는 것일 따름입니다.¹³⁾

‘荒辭’라 함은癸巳年에 올렸던 封事에서 한 말을 이르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잃고 파천하시어 비웃음거리를 후세에까지 남겼으니 비록 말세의 나라를 망친 임금과 그 부끄러운 덕이 같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¹⁴⁾라고 한 것이다. 그는 「賊退後封事」에서 정치를 하는데 두 가지의 강령과 열두 가지의 급선무를 말한 바가 있는데, 강령에는 성현의 학문으로 통치의 근본을 세우는 것과, 현명한 재상에게 정치를 맡겨 그 효과를 내도록 책망하는 것이다. 또 정치의 급선무는 첫째, 오래도록 벼슬을 맡겨 업적을 살펴보는 것, 둘째, 학교를 넓혀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 셋째, 백성을 구휼하여 국가의 근본을 굳게 하는 것, 넷째, 제사 지내는 예를 바르게 하는 것, 다섯째, 私的蓄財를 없애는 것, 여섯

13) 洪可臣,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322(『만전집』 권 4, 「應求言封事」), “癸巳之秋 不揆愚賤 猥綴荒辭 冀補中興更化之萬一 而殿下隨例泛下 竟無一事施行 則今日之所患 非無言事之臣 蓋雖有之 而不能用其言耳”

14) 위의 책, p.244(『晩全集』 3권, 「賊退後封事」), “其失國播越 貽譏後世 雖謂之與末世亡國之君同其慙德 未爲過也”

제, 儉約하게 하여 사치를 변화 시키는 것. 일곱제, 탐관오리를 경계하게 하는 것, 여덟제,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는 것, 아홉제, 관리 등용을 공정하게 하는 것, 열제, 장수는 병마에 관한 일만 전문적으로 하게 하는 것, 열한제, 군량을 비축하는 것. 열두제, 형벌을 완화로 사람의 목숨을 아끼는 것¹⁵⁾이었다.

이에 대하여 泛下(봉하)함을 지적하면서 임금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목숨도 앓길 수 있는 諫言이라 하겠다. 하지만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殆不殆를 가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선비이다. 그야말로 애국충정에서 직언도 서슴지 않았음에 선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만전당의 정직함은 그의 신념이다. 이러한 정신이 나라를 위하는 충정으로 발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라에 대한 배신과 뇌물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소신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결단력에서, 그리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임금에게 荒言도 불사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3. 청렴성과 혁신의 정치

晩全堂이 관리로 있는 동안 보여준 청렴정신은 타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宣祖實錄』 선조29년 7월 2일 기사 만전당에 대한 소개 글에 ‘일찍부터 儒名이 있었는데 행실이 청렴결백하다는 것으로 한 세상에 이름이 났다.’¹⁶⁾고 하였듯이 청렴리로 名振하였고, 이러한 정신이 그의 생애 곳곳에 보인다.

15) 위의 글, “所謂爲治之大綱有二 曰勤聖學以立治本 曰委賢相以責治效 所謂謂治之急務有十二 曰久任官以考庶績 曰敦學校以育人材 曰恤百姓以固邦本 曰罷黜祀以正享禮 曰革內司以祛私藏 曰崇節儉以變奢侈 曰嚴臧法以戒貧污 曰重守令以寄字牧 曰擇監司以公黜陟 曰謹選將以專閫任 曰省冗食以備軍資 曰緩刑獄以惜人命”

16) 『선조실록』 선조29년 7월 2일 기사, “早負儒名 以行誼廉潔聞於一世”

수령을 내놓고 집에 돌아와 있을 때면 거의 때를 걸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그 때마다 처가의 도움으로 겨우 명을 유지할 정도였다고 한다.

매양 수령을 내놓고 돌아오면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부인의 친정에서 보내오는 것으로 조식을 이어 주립을 면했다. 수원으로부터 돌아와서는 죽미음도 계속되지 못했지만 집안 일로 해서 마음에 췌가 되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주리고 곤한 중에 옛사람의 글을 읽으면 배고픔을 잊는다.”하였다. 일찍이 “남에 대하여 가난함을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구절을 외우면서 말하기를 “이 말을 마땅히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¹⁷⁾

이때는 鄭汝立 모반사건으로 수원부사 직에서 파직 당하고 집에 운둔하고 있었던 때이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지인에게 의탁할 수 있는 처지임에도 책을 읽으며 배고픔을 참고 견디는 모습이다. 특히 남에게 가난함을 알리는 자체가 도움을 받으려는 의미임을 말하고 있는 데에서 그의 청렴성을 읽을 수 있다.

홍주목사의 임기를 마치고 남양 집에 머물 때의 일이다. 이때도 역시 어렵게 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기해에 홍주에서 임기가 차서 남양 촌집에 기거하였는데, 艱苦하기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홍주 백성들이 듣고 보리 수십 석을 배로 운반해 가져왔으나 공은 사양하였다. 온 사람이 간절히 받기를 빌므로 겨우 한 섬만 받게 하여는데, 전별의 뜻으로 응낙한 것이다.¹⁸⁾

홍주의 백성들이 그의 艱苦함을 듣고 보리 수십 석을 가져 오는 것을

17) 홍경신,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492(『만전집』부록, 「行狀」), “每遞守令 還家無食 賴夫人親家備送朝夕資 得免飢. 自水原還 糜粥不繼 而不以家事累心. 嘗曰 飢困中讀古人書 則頓覺忘飢. 嘗誦對人言貧 其意安在之語曰 此語當銘心不忘 可也”

18) 위의 책, pp.498-499. “己亥 洪陽瓜滿 寓居南陽村舍 艱苦備至 州民聞之 以牟數十斛船運而來 公辭之 來人懇乞留置 爲受一斛 以答來贐之意”

마다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그가 임지에 있는 동안 고을 사람들에게 베푼 공덕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다. 그러나 만전당은 한사코 이를 사양하는 것이었다. 결국 홍주 백성들의 진심어린 정성에 겨우 한 섬만 받을 것을 응낙하고 있는 데에서 또한 그의 마음 됴됨이를 느낄 수 있다.

그가 개성유수를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나서 1608년 선조가 승하하였음에도 나라에서 계속 녹을 줌에 1609년 녹봉을 사양하는 「辭祿劄」을 올렸는데, 여기에서도 그의 청렴정신이 강하게 느껴진다.

녹이란 벼슬하는 자가 받는 것인데, 신은 늙어서 시골에 물러나와 아무 일도 없이 한갓 국가의 곡식만 허비하고 있으니 이것은 뒷세상에 소찬(공짜 밥)의 비웃음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신이 비록 빈곤하오나 祖先의 莊業이 조금 있어 닭을 치고 기장을 심어 구차하게나마 조석으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중략> 비록 녹을 받지 않더라도 신은 한이 될 바가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갇지 않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¹⁹⁾

致仕 상소를 올려 허락을 받았는데, 奉朝賀²⁰⁾로서 계속 녹을 내리자 이를 사양하는 劄子를 올린 것이다. 이에 광해군이 前代에 勳臣을 우대하는 법전이기에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는 批答이 있었다.

반면 만전당은 우리의 역사에서 접하기 어려운 대단한 행정가였다. 그는 康陵參奉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부임하는 임지마다 그곳 고을 사람들로 부터 호평과 존경을 받았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행정적 능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爲民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혁신에 있었다.

康陵參奉으로 있을 때 齋祝을 오직 삼가고 齋에 있으면서 일이 없을

19) 洪可臣,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384(『만전집』 권 4, 「辭祿劄」), “祿者 仕者之俸也 臣退老田間 無事而徒費國稟 無乃貽後世素餐之譏乎 <중략> 臣雖貧困 薄有祖先莊業 養鷄種黍 苟延朝夕 <중략> 雖不受祿 臣無所恨 此所謂報不報之恩者也”

20)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勳號로서 職事는 없다. 다만 正朝·冬至·生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祿이 지급되는 恩給制度이다.

맨 단정히 앉아 글을 읽었으며, 무릇 柴炭과 馬草를 공급해야하는 폐단을 개혁해 없앴다.²¹⁾ 이에 능력을 인정받아 6품으로 陞敍²²⁾되었고, 선조 7년(1574)에 부여현감에 부임하였다. 부임 후 이곳의 폐단을 낱알이 파악하고 이것을 반드시 혁파해야 함을 임금께 상주하고 있다.

군의 우두머리가 여러 명목으로 가렴주구하며 당파를 나누고 빗쟁이처럼 여가니 부자는 밭을 팔아 밭이 다 팔리면 그 몸을 피하고 가난한 자도 밭은 없으나 도망갈 뿐입니다. 수령은 비록 당사자가 이미 도망을 간 것을 잘 알고 있더라도 역가포를 상환토록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이에 도망한 군졸의 가까운 친척을 잡아 놓고 모든 친척에게 나누어 징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략> 친족이 없는 군졸은 주인 없는 땅에 농사를 짓게 하여 징수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군졸은 가까운 이웃에게 징수하여 한 군졸이 도망을 하면 열 집이 파산하게 되어 끝내 역시 (이들도) 보존하지 못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²³⁾

그가 처음 夫餘縣으로 부임하여 그곳의 애환을 파악하고자 고을 백성들에게 물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이 군졸 일족들의 폐단이 었다. 여기에서의 폐단은 主將(군부 우두머리)의 ‘誅求多岐’와 ‘色目如蠅’²⁴⁾라는 말에서 그곳의 실상이 느껴진다.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派黨을 하여 빗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에서

21) 홍경신,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486(『만전집』 부록, 「行狀」), “齋祝惟謹 齋居無事 端坐讀書 凡柴炭馬草供給弊規 一切革祛”

22) 선조실록 6년 12월 18일의 기록을 보면 이조가 아뢰기를, “전일의 承傳에 ‘山野의 행실이 있는 사람이나 이미 벼슬을 제수한 자 중에 더욱 특이한 자는 차서에 구애 없이 발탁하여 쓰라.’고 전교하셨으므로, 書啓합니다. 6품으로 陞敍되기에 합당한 자는 康陵參奉 奇大鼎・洪可臣, 禮賓寺參奉 柳夢鶴, 敬陵參奉 柳夢井, 生員 金富弼, 幼學 鄭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公事는 大臣에게 의논한 것인가?” 하였다.

23) 앞의 책(『만전집』 3권, 「民弊疏」), “主將誅求多岐 色目如蠅 富者賣其田 田盡則逃其身 貧者無田 只有逃而已 守令雖明知其當人之已逃 而以其役價布 不可以不償 於是 捉致亡卒之首族 使之盡列其族而分徵之 <중략> 無族之卒 則徵其執耕 無執耕之卒 則徵其切隣 一卒逃亡 十家破產 終亦至於不保”

24) 色目은 당시 백색당(서인)과 청색당(동인)의 당파를 말하고, 如蠅은 ‘如蠅負瓜’로 고슴도치가 오이를 짊어진 것 같음, 즉 남에게 진 빚이 많음을 이르는 말.

그곳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는 明若觀火하다.

그 외에도 국가에 바치는 공물, 그 지방의 토산물, 악공의 수효, 포목을 징수하는 該司 色吏의 비리 등 다섯 가지 폐해를 제시하고 이러한 폐단을 척결해 줄 것을 임금께 상주하고 있다. 이 疎를 본 임금이 받아들임으로써 다섯 가지 조목을 일일이 행하니 고을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²⁵⁾ 또 백성들은 감사 등에게 글을 올려 “이런 사실을 우리들 할아버지가 아비에게 전하고, 아비는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은 손자에게 전해 주었으니 나라를 세운 이후로 이 같은 어진 정사는 없다.”²⁶⁾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혁신적 행정은 벼슬하고 있는 동안 끊임이 없었다. 안산 군수로 부임하여 善治했다는 救荒御史 李聖任의 장계에 의해 陞敍하였고²⁷⁾ 水原府使에 부임해서 구황 성적이 도내의 제일이었다.²⁸⁾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4. 변란에 대한 대처

만전당의 인생역정은 왜적의 침입과 민중반란, 그리고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와 맞서야 했던 세월이었다. 이런저런 사건 중에 그에게 가장 위급했던 것이 기축옥사였다. 그는 정여립의 모반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가장 절친한 친구인 李潑, 李洁 형제가 장살과 옥사를 당했으며, 이 때 고문을 당하다 죽거나 사형당한 동인세력이

25) 洪可臣,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209(『만전집』 3권, 「民弊疎」), “上嘉納疏中五條 一一舉行 邑民大悅”

26) 위의 책, p.209(『만전집』 3권, 「民弊疎」), “百姓呈監司等狀云 民等之祖傳言於父 父傳言於子 子傳言於孫 自開國以來 未有如此仁政云”

27) 『선조실록』 권18, 「선조17년 5월조」, 고전번역원, “安山郡守洪可臣 因救荒御史 李聖任狀啓善治 命陞敍”

28) 『선조실록』 권22, 「선조21년 6월조」, 고전번역원, “水原府使洪可臣 救荒之政 爲道內第一”

천여 명이 넘을 정도였다. 만전당 역시 白惟誠(1546~1618)의 모함으로 수원부사 직에서 파직을 당한 상태였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風前燈火의 형국이었다.

기축년 12월 4일,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水原府使 洪可信은 역적과 정을 나누고 평소에 친밀하여 이발 형제와 서로 推獎하였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시고 <중략> 경인년 5월 13일, 李潑의 늙은 어미와 어린 아들이 매를 맞고 죽었으며, 그의 (조카)사위인 洪可信의 아들 洪稅(洪恣)와 金應南의 아들 金命龍은 모두 壓死 당했고, 문생과 노비들은 모두 엄형에 처했으나 자복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²⁹⁾

여기에서 洪恣과 金命龍 모두 이 사건으로 壓死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명룡은 광해군 13년(1621) 알성시 병과에 급제하여 군수까지 지낸 전력이 있고, 洪恣은 趙綱이 지은 만전당의 臣道碑銘에 行狀과 文集을 가져와 비명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전당은 기축옥사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李潑형제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다. 閔純의 문하에서의 동학이었고, 또한 李涪과는 사돈지간이었다. 이로 인하여 수원부사직에서 파직 당한 후 남양에서 어렵게 살며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다.

이공익의 『燃藜室記述別集』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만전당의 아들과 이길의 딸인 셋째 며느리와의 이혼을 허락해줄 것을 임금에게 청하고 있다. 이는 만전당도 화를 당할 수는 있는 위급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 시대 逆家와의 이혼은 화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29) 黃赫, 『己丑錄』, 「己丑錄上」, 고전번역원, 1971, “初四日院啓 水原府使洪可信以逆賊交情素密 與李潑兄弟互相推獎 請罷 <중략> 十三日 李潑老母稚子並死杖下 其婿洪可信子稅 金應南子命龍 俱爲壓死 門生奴僕盡爲嚴刑 無一人承服者”

金應南의 아들 命龍과 洪可信의 아들 焄은 모두 李涪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기축년의 난을 겪고 가신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이혼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다. 명룡도 임금에게 글을 올려 이혼의 허락을 청하였다. 이때 응남은 중국 서 울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선비들의 공론이 응남은 허물하지 않았으나, 가신을 대단히 애석하게 여겼다.³⁰⁾

당시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많은 비난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발, 이길 형제와는 사돈이기 이전에 친구로서 우의가 매우 돈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들이 결코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應求言封事」에서 그들에게 신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己丑逆獄의 참혹함을 말하자면 기가 막힙니다. 역신 여림이 입으로는 詩書를 외우면서도 성품은 실상 흉악한 마음을 품어서 제 뜻을 잃고 낭패하게 되자 속으로 원망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비밀리에 무뢰배들을 이끌어 감히 하늘을 쏘 게책을 내었다가...<중략> 두세 사람 벼슬아치에 이르러서는 모두 일시의 명류들로서 특별히 착한 것을 좋아만하고 그 사람은 가리지 않았으며 말만 듣고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 왕복으로 문답하는 사이에 망령되이 세상일의 시비를 의논하였으니 이것은 죄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함께 역적모의에 참여해서 불측한 일을 도모했다고 한 즉 이런 일은 만무할 것입니다.³¹⁾

위의 내용은 기축옥사가 일어난 지 7년 후에 올린 글이다. 여기에서 鄭汝立에 대하여 만큼은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口誦詩書 性實包藏’으로 말하면서 매우 간악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二三朝紳’ 즉 이발, 이길에 대해서는 역모가 만무하다고 말하고 있다.

30) 이궁익, 『燃藜室記述別集』 권12, 「政教典故-婚禮」, 고전번역원, 1966, “金應南子命龍 洪可臣子焄 皆娶李涪女 己丑之難 可臣上書請離婚 命龍亦上書請離婚 時應南赴京未還 士論不咎應南 而多爲可臣惜之”

31) 洪可臣, 『晚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332(『만전집』 권 4, 「應求言封事」), “己丑逆獄之慘 言之短氣 逆臣汝立 口誦詩書 性實包藏 及其失志狼狽 陰懷怨懟 潛引無賴之徒 敢生射天之計 <중략> 至於二三朝紳 則皆是一時之名流 特以好善而不擇人 聽言而不觀行 書札問答之間 妄論時事是非 是則不無其罪 而謂之同參逆謀 以圖不軌 則萬無是事矣”

만전당의 생애에 있어 생존이라는 난관을 넘어야 할 때가 많았지만 그에게 있어 기축옥사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자칫하면 자신도 쫓겨 못할 역울함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李涪의 딸과 아들 漣과의 이혼 청구하고 정여립과의 선긋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동인, 서인을 가리지 않는 친화력과 직분을 수행하는 행정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데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鄭汝立 모반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후 壬辰倭亂을 맞게 된다. 임진왜란은 우리의 역사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게 했다. 이때에 그는 易姓謀反사건에 연루되어 수원부사의 직에서 파직당한 후 남양에서 은거하고 있었는데, 倭亂을 맞아 布衣의 신분으로 향당중심의 舉義를 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忠情을 불태우고 있다.

그가 남양에 도착했을 때 역시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하여 뜻대로 되지 않음에 그 고민을 친구 宋瑄(1544~1629)³²⁾에게 토로한다.

내 流離輾轉하다가 팔월 초순에 어렵게 당성에 이르러 나라에 갇힌 길이 없음을 뼈아프게 생각하여 한두 사람 동지와 더불어 향병을 모집하여 君父의 원수 갚기를 도모하였으나 힘이 모자라고 재주가 없어 뜻과 같지 못한 일이 열여덟아홉번만이 아니니 통곡한들 무엇 하겠는가. <중략> 말하면 마음이 아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노라.³³⁾

남양으로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도착하고 나서 동지와 더불어 舉義하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무척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32) 자는 仲懷 호는 木翁. 金謹恭과 閔純의 문하에서 배웠다. 果川, 江陰, 雲峯 등의 현감과 谷山, 丹陽 등의 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세자익위사 익위, 형조 정랑 등을 거쳤다.

33) 洪可臣,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164(『晩全集』2, 「與宋雲峯仲懷書」), “僕流離輾轉 八月初 艱到唐城 痛念報效之無路 與一二同志 召募鄉兵 圖報君父之讐 而力綿材薄 不如意事不啻十八九 痛哭奈何 <중략> 言之痛心 不如無生”

때 지은 시에 이러한 고민이 잘 나타나 있다. “왜구를 피해 남쪽으로 온 지 벌써 한 해가 지났는데/ 당성진에서 봄 중 절반을 궁벽한 바닷가에서 머물렀네./ 온 나라에 병사들이 제멋대로이니 어느 때 평정하리/ 떨어지는 눈물 시간이 흐를수록 참을 수가 없네. <후략>”³⁴⁾

만전당은 布衣이면서 숨어서 피해 지낼 법도 하지만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물 흘리며 난국을 타개할 고민에 휩싸여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살고 싶을 마음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擧兵을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행하였고, 적을 토벌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가을에 남양으로 들어가서 향당을 창술하여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였는데, 그 때 목을 베거나 사로잡았으나 임금께 장계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침내 창의군과 더불어 서로 견제해서 병사와 군량에 대한 문서를 순찰사에게 주고 罷軍하여 호서로 돌아왔다.³⁵⁾

이러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그 功을 임금에게 아뢰지 않았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의병들을 관군의 편제에 편입하고자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의병이 전쟁 후에 私組織化되어 정여립과 같은 逆徒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선조가 관군에 편성시키라는 명령에 의병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晩全堂은 의병의 문서를 순찰사에게 넘겨주고 罷軍하였던 것이다.

壬辰亂이 일어난 후 이듬해인 癸巳年(선조26년, 1593)에 우여곡절 끝에 임금의 부름을 받는다. 이로써 파주목사로 부임하였다가 이듬해 홍주목사에 제수되었는데, 홍주는 호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으로써 호

34) 위의 책, pp.132-133(『晩全集』 권1, 「避亂唐津」), “避寇南奔歲已經 唐津春半滯窮溟 兵橫宇縣何時定 淚入年華不禁零 <후략>”

35) 홍경신,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493(『만전집』 부록, 「行狀」), “秋轉入南陽 倡率鄉黨 擧義討賊 時有斬獲 不屑啓聞 適與倡義軍相牽掣 籍兵糧付巡察使 罷歸湖西”

서를 가로막는 군사요충지였다. 만전당이 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이곳 백성들의 생활은 전쟁과 흉년으로 인한 생활고로 몹시 각박하였다. 『瑣尾錄』에서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또 길에서 굶어 죽은 시체를 거적으로 말아서 덮어둔 것을 보았는데 그 곁에 두 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다. 물었더니 그 어머니라 한다. 어제 병으로 죽었는데 그 뼈를 묻으려 해도 비단 저들 힘으로 옮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땅을 팔 도구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³⁶⁾

晩全堂이 홍주로 부임할 즈음에 쓴 기록인데, 처참할 정도이다. 이리다 보니 점점 민심이반의 현상이 커졌다. 이로 인해 호서에서는 李夢學(?~1596)³⁷⁾을 중심으로 민중들을 규합하여 鴻山을 시작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林川・定山・靑陽・大興을 함락하고 그 여세로 洪州城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이 해 가을 역적 이몽학이 홍산으로부터 일어나서 연달아 두어 고을을 함락시키고 守宰들을 잡아가니 湖內가 크게 진동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성을 버리고 왕실을 구원할 것을 권하니 공이 말하기를 “봉강을 맡은 신하는 봉강에서 죽어야 한다.”하고 분연히 성을 지킬 계획을 세웠다.³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느낄 수 있다. 연달아 고을을 함락시키면서 반란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이들은 洪

36) 오희문, 『瑣尾錄』, 『甲午日錄』, 2월14일 기사, “且路見餓屍 以藁席掩覆 傍有兩兒坐立 問之則曰 其母也 昨日病餒 而死 欲埋其骨 非但力不能移動 又不得掘土之具云”

37) 왕족의 서얼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將校가 되었다가, 국사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募粟官 韓絢 등과 함께 홍산 무량사에서 반란을 모의하고 의병을 가장하여 조련을 하였으며, 동갑회(同甲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친목회를 가장, 미중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38) 홍경신,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497(『만전집』 부록, 「行狀」), “是年秋 逆孽李夢鶴起自鴻山 連陷數邑 劫掠守宰 湖內大震 或勸公棄城勤王 公曰 封疆之臣 死於封疆 奮然爲城守計”

州城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주위에서 홍주성을 떠날 것을 권했으나 단호하게 거부하고 성을 지킬 계획을 세웠다. 民兵을 모으는 한편, 홍주에 사는 무장 林得義·朴名賢과 전 병사 辛景恒 등을 불러서³⁹⁾ 대책을 세워 반란군이 홍주로 향해 진격하자 조직적으로 대항하였다.

선생이 군사를 모아 굳게 지키고 상황에 맞게 지휘함으로써 적을 주륙할 수 있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선생을 가리켜 兵車를 타고 군사를 지휘할 만한 장군의 재주가 있다 하였고, 論功하고 策勳하여 마침내 보필하는 지위에 올랐다. 전후로 정치의 폐단을 抗言할 때에 時諱를 꺼리지 않았으니, 社稷을 위기에서 구한 重臣이라고 하겠다.⁴⁰⁾

그가 반란군과 맞서서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방어계획과 상황에 맞는 指揮力, 그리고 고을백성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있었다. 특히 고을백성들이 민병모집에 협조적이었던 것은 만전당의 善治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어느 임지에 부임하든 그 지역의 폐단을 파악하고 백성들을 위해 제도를 혁신하는 행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반란군의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이탈하여 관군과 대응하는 자가 속출하였고, 이몽학은 그의 부하 金景蒼·임억명·태근에 의하여 결국 피살되고 말았다.

홍주성이 함락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왜란 당시 싸움 한 번 제대로 치르지 않고 일본군이 서울로 입성하였듯이 이몽학의 반란군도 더욱 기세를 높여 서울까지 무난히 입성하였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전당은 지역의 작은 민란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수호한 것이어서 여기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39) 『國朝寶鑑』 권32, 선조조9, 29년(병신, 1596), 고전번역원, 1994, “夢鶴進攻洪州牧使洪可臣收聚民兵 且召州居 武將林得義朴名賢 前兵使辛景恒等 爲守城計”

40) 李瀾, 『星湖全集』 권50, 「晩全堂洪先生文集序」, 고전번역원, 2007.

Ⅲ. 삶의 지향

花潭 徐敬德(1489~1546)에게 習靜 閔純이 도통을 이어받았고, 晩全堂은 습정 민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이가 “花潭은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으나 중후함이 부족하여 그 독서하고 궁리함에 문자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많이 채용했다.”⁴¹⁾고 하였듯이 그의 학풍을 독자적인 主靜說로 발전 시켰다. 主靜이란 ‘無慾함으로써 고요하다’란 의미로 성인은 動靜의 덕을 겸비하고 있으나 그 成德의 기본은 靜, 다시 말하면 私意私慾이 없는, 참으로 주체성이 확립된 경지(이것을 기상으로 본 경우에는 澹然虛明이라든가 湛一清明이라고 말하고 物에 비유하면 明鏡止水와 같다고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⁴²⁾ 이러한 학풍을 습정으로부터 이어받은 사람이 만전당이다. 습정은 화담으로부터 主靜의 說을 듣고 크게 감화하여 자신의 아호를 ‘習靜’이라고 할 만큼 主靜에 심취하였던 분이다. 만전당도 배움을 구할 때 습정으로부터 “사람이 능히 主靜을 하면 총명이 열리는 것, 이것이 자연한 이치다.”⁴³⁾라는 말을 익히 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만전당도 이를 삶의 철학으로 여기고 실천하려는 흔적이 그가 남긴 遺稿의 곳곳에 스미어 있는데, 이로 보아 그가 지향하고자 했던 삶이 主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1. 자연에 의지하고 싶은 삶의 謳歌

晩全堂이 丙子年(1576년, 선조9) 부여의 수령으로 있을 때 관사 가까

41) 李珥, 『율곡선생전서』 권10, 「答成浩原」, 고전번역원, 1966, “花潭則聰明過人而厚重不足 其讀書窮理 不拘文字 而多用意思”

42) 佐藤仁, 「李退溪와 李延平에 관하여」, 『퇴계학보』 제68호, 퇴계학연구소, 1990, p.244.

43) 위의 책, p.421, “人能主靜 則聰明開發 此自然之理也”

운 곳에 암자를 짓고 ‘吏隱菴’이라고 이름 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비록 이곳에서 관리 노릇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암자를 지었을 때 ‘隱’의 지취에 부합되는 면이 많았다. 암자는 관사와의 거리가 몇 리 되진 않지만 형세는 속세와 아주 많이 다르다.⁴⁴⁾

바로 이 암자를 짓고 ‘吏隱菴’이라고 한 것은 ‘隱’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전당의 이러한 생각은 화담 서경덕과 습정 민순의 삶의 방식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화담은 명산대천을 유람하면서 자연과 벗 삼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을 임천에서 보냈으며, 습정 또한 생의 대부분을 임천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았던 분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만전당 역시 부역에 부임하여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암자를 지어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아 자연을 만끽하며 노래하고 있다.

客有好巖棲	바위 집 좋아하는 나그네
雲扉夜不閉	구름어린 밤 사립문도 닫지 않는구나.
時聞月下灘	때때로 달 아래 여울물소리 들려오고
風送鶴清唳	바람에 학의 고운 소리 실려 오누나. ⁴⁵⁾

그가 지향하는 삶을 이 시의 제목 「宿滄洲吏隱庵」에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滄洲’란 경치 좋은 은자의 거처를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에서 그가 진정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를 「吏隱菴記」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다.

44) 洪可臣,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p.152(『晩全集』 2권, 「吏隱菴記」), “余雖不免作吏於此 然余構是菴也 其有會於隱之趣深矣. 菴距官舍不滿數里 而勢甚夔絕”

45) 위의 책, p.52(『晩全集』 1권, 「宿滄洲吏隱庵」)

나는 공무를 마친 여가에 대지팡이를 짚은 채 구름을 뚫고 배를 타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늘 평상복을 입고 셋길로 가면서 고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고요히 앉아 향을 피우고 온 방 안을 고요히 한 다음 혹은 도서에 마음을 쏟기도 하고 혹은 음풍농월하면서 강산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魚鳥의 짝이 되기도 한다.⁴⁶⁾

구름이 어려 있는 곳에서 음풍농월하면서 魚鳥를 벗 삼아 지내기 위해 ‘吏隱菴’을 지었고 틈이 나면 수시로 찾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모습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화담과 습정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도 언젠가는 자연으로 귀의하여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晩全堂은 벼슬살이를 하면서 늘 이런 삶의 욕구를 버리지 못했다. 개성유수로 부임하여 쓴 시에서도 자연에 귀의하겠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歸趁潯陽江上春	심양강 가로 봄이 되어 돌아오니
茅齋依舊景如新	띠집은 예와 같고 경치는 오히려 새로워라.
朝來坐想湖洲路	아침에 일어나니 호서 가는 길 생각나
帆掛西江落貢津	서강에서 돛을 달고 공세나루로 떠나가리. ⁴⁷⁾

이 시는 기구와 승구에 도연명의 귀거래를 표현하고, 전구와 결구에 서 고향에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고 싶은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시는 만전당이 歸去來圖에 題跋로 적은 시인데, 귀향하여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쓴 ‘歸居來詩’다.

「行狀」에서도 “화공으로 하여금 陶淵明의 歸居來圖를 그리게 하고

46) 위의 책, p.153(『晩全集』 2권, 「吏隱菴記」), “余於公退之暇 竹杖穿雲 闌舟泝流 皆便服徑造 不使邑人知 靜坐焚香 一室岑寂 或玩心圖書 或吟弄風月 江山之主 魚鳥之侶”

47) 위의 책, pp.125-126(『晩全集』 1권, 「在松京令畫淵明歸居來圖于壁上題其旁」)

(그림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로부터 호서에 돌아가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하리라.’하였다.”⁴⁸⁾ 그러고는 임금에게 致仕를 올리고 아산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그 후 아산 대동에서 은거하면서 노쇠한 年齒임에도 그동안 자신이 지향하고자 했던 삶을 추구하고 있다. 바로 「怪石次窰兒韻」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庚庚一丈石	가로 누운 한 길 바위
歲久苔成錦	오랜 세월로 비단이기 덮였네.
尊嚴長者樣	준엄하고 덕스런 모양인데
微側如酣飲	어렴풋이 술 취한 모습이라.
崖崩兩竇穿	까여 패인 곳에 두 구멍 뚫렸는데
屈曲難俯瞻	이리저리 굽어 꺾여 숙여보려 해도 쉽지 않네.
窮奇更殫險	사납고 또한 험한 모양 다하니
造物戲之甚	조물주의 장난이 심하기도 하다.
田蹊任埋沒	밭길에 제멋대로 묻혀 있으니
樵牧誰相諗	초동, 목동 누구인들 서로 돌아 봤을까.
老眼奪天慳	늙은이 하늘이 아끼는 걸 빼앗음에
眞宰不得禁	조물주도 어찌 할 수 없었으리.
氈包費推輓	꺼치로 싸서 밀고 끄는 힘 허비하다보니
九牛汗流藩	소 아홉 마리가 흘린 땀을 짜냈구나.
未煩愚公移	번거롭기가 우공이산 만큼은 아니지만
突兀當我寢	내 침실 앞에 우뚝하게 세워졌다.
荒庭纔半畝	거친 땅이 겨우 반 이랑 남짓한데
花竹散清蔭	꽃과 대나무의 청량한 그늘 깔리어 있는 곳.
濯以清冷泉	맑고 찬 샘물로 씻어내니
孱顏倏映枕	우람한 모습이 문득 베개 가에 비춰지네.
病拙宦遊懶	병든 나는 벼슬살이에 게을러져
歸林已三稔	임천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지.

48) 위의 책, p.504(『만전집』 부록, 「行狀」), “令畫手作淵明歸去來圖 指之曰 自此歸湖西 當如是也”

相對可終年 너와 함께 남은 세월 지낼 만하니
行藏自此審 나아가고 물러섬을 이제부터 살피리라.⁴⁹⁾

들판에 놓인 한 길이나 되는 아름다운 괴석을 옮겨 정원을 꾸미는 모습이다. 조물주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야말로 ‘天悭’을 뺏어오는 일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조물주도 말릴 수 없다는 데에서 그의 의지가 강력하다. 또한 이 일을 감행하면서 애쓴 정도를 ‘九牛汗流’ 만큼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그동안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晩全堂은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늘 자연에 귀의해서 사는 삶을 잊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귀의한 후 지극히 만족하는 모습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음을 느끼게 한다.

2. 求道에 대한 갈망

求道에 대한 갈망이 그의 시문에 자주 나타나는데 바로 그 道[修己] 역시 ‘主靜說’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만전당이 처음 康陵參奉에 제수되어 道를 수양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는 안타까움을 「題康陵齋壁」에서 노래하고 있다.

晨起肅衣冠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니
窓日紅初發 창살에 해가 붉게 떠올라.
忽驚節序晚 문득 때가 늦었다고 놀랐을 때
悲蟬吟清樾 산뜻한 숲 속 매미소리 구슬프기만.
薄宦不救飢 낮은 벼슬은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고
舊學轉荒沒 옛날 배웠던 것조차 잊혀만 가.
浮生諒無幾 떠도는 인생 얼마 되지 않았건만
世故靡有歇 세상의 번고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49) 위의 책, pp.94-95(『晩全集』 1권, 「怪石次叟兒韻」)

卓彼山中人 저 산 속의 사람 탁월함은
塵穢脫風骨 속세에서 그의 몸이 탈피했기 때문이지.
昭昭水雲懷 맑고 맑은 물에 비친 구름을 품고
吟弄松巖月 송암에서 음풍농월하네.
何不往問道 왜 그대에게 가 도를 묻지 않고
漫令生華髮 부질없이 흰 머리만 나게 하는가.⁵⁰⁾

배운 것조차 잊혀져가는 현실과 나라의 끊임없는 변고 속에 처해 있는 晩全堂 모습이 몹시 처량하다. 山中道人을 부러워하며 그에게 도를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그의 求道에 대한 갈망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진다.

이 시에서 ‘山中人’은 松雲(四溟堂: 1545~1610)스님으로 추정된다. ‘昭昭水雲懷 吟弄松巖月’에서 ‘松雲’을 암시하고 있다. 송운스님과 친분관계가 돈독했고 主靜觀에 있어서도 서로 동감하는 처지였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시가 「次沈相國韻贈雲師」三首이다. 松雲과 煙霞의 선경 속에서 시를 읊으며 지내고 있다. 그 중 其一에서 道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있다.

聖代休兵革 성군시대 전쟁이 평정되니
衰翁賦遂初 쇠한 늙은이 비로소 부를 짓네.
郡齋辭吏事 군재의 관청일 사임하고
僧舍作隣居 스님의 집과 이웃해서 살고 있네.
生意看庭草 뜰 앞의 풀을 보니 살 의지가 생기고
幽情付古書 옛 책에 의지하니 정이 그윽해지네.
空山日復夕 빈산에 해 돋고 다시 지는데
吾道竟何如 나의 도를 어찌해야 이를까.⁵¹⁾

50) 위의 책, p.91(『晩全集』 1권, 「題康陵齋壁」)

51) 위의 책, pp.72-73(『晩全集』 1권, 「次沈相國韻贈雲師」)

내용면에서 비교해 볼 때, 앞의 시 「題康陵齋壁」과는 상황이 정반대이다. ‘世故靡有歇’의 시대에서 ‘聖代休兵革’의 시대로, ‘薄宦不救飢’의 상황에서 ‘郡齋辭吏事’의 상황으로, ‘산중인을 그리워’하는 관계에서 ‘僧舍作隣居’의 관계로, ‘舊學轉荒沒’의 처지에서 ‘幽情付古書’의 처지로 現象이 전환되었지만 求道에 있어서는 만큼은 별 진전이 없음에 고민한다.

그러나 求道에 대한 갈망이 계속되고 있다. 「贈安四耐」二首 中 其一에서 그런 노력이 보인다.

世事付能者 세상일은 능력자에게 맡기고
歸歟尋舊居 돌아가련다. 옛집을 찾아서.
朝聞夕死可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
閉戶讀殘書 대문 닫고 읽다 만 책이나 보리라.⁵²⁾

이 시의 승구에서 도연명의 ‘歸去來辭’가 연상된다. 그가 開城留守로 있을 때, 화공에게 ‘歸去來圖’를 그리게 하고 이 그림에 題跋한 시를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도 자연 속에 귀의하겠다는 결심을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 귀의하려는 이유가 이 시에서 뚜렷하게 느껴진다. 즉 求道の 진척을 위해서 이다.

전구는 『論語』의 「里仁篇」에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를 用事하였는데, 이 말에 朱子は “道라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진실로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살아가는 이치에 따르고 죽음에도 편안해져서 여한이 없을 것이다.”⁵³⁾라고 풀이하고 있듯, 만전당도 이치에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求道에 대한 열의가 느껴진 대목이다.

만전당이 선조에게 올린 상주문에서 求道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추구하고 있는 道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52) 위의 책, p.60(『晩全集』 1권, 「贈安四耐」)

53) 『論語里仁』, “朱注云 道者 事物當然之理 苟得聞之 則生順死安 無復遺恨矣”

신이 일찍이 듣자오매 주희의 말에 “세상에 큰 공을 세우기 쉽지는 않으나 지극히 작은 자기의 본심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이며, 중원의 오랑캐는 쫓기는 쉬워도 한 몸의 사사로운 마음은 없애기 어렵다.”하오니 뜻을 세우고 어진 이를 구하는 것이 진실로 오늘 날의 큰 근본이요 급한 일이오나 (자기 몸을) 살피고 (사욕이나 과오를) 다스려 이겨내는 학문이 어찌 이 두 가지의 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⁵⁴⁾

여기에서 그는 ‘省察克治之學’이 곧 求道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사리사욕을 없애면 고요한 경지에 이른다는 화담과 습정의 主靜의 說인 것이다.

또한 「次沈相國韻贈雲師」, 「贈安四耐」가 「應求言封事」보다는 시기적으로 10년 정도 후에 지은 것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일관된 삶의 경로로 볼 때 그가 구하고자 고민했던 道가 主靜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나라를 향한 충정

만전당은 민란과 두 번의 왜란과 겪으면서 세운 공헌과, 『晩全集』에 수록된 일곱 차례의 上疏文, 여덟 차례의 劄子文에서 그의 나라를 향한 충정이 잘 나타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임진왜란 시엔 남양에서 향병을 모집하여 의병활동을 한 사실, 이몽학 난을 홍주목사로서 평정한 일, 그리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임금에게 올린 글에 나타나는 命을 아끼지 않는 忠言이 이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나라를 향한 私心이 없는 忠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서나 처해 있는 상황의 易難을 가리지 않고 늘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54) 위의 책, pp.353-354(『晩全集』 4권, 「應求言封事」), “臣嘗聞朱熹之說 不世之大功易立 而至微之本心難保 中原之戎虜易逐 而一己之私意難除 立志求賢 固爲今日之大本急務 省察克治之學 又豈非求盡二者之要道也”

昨夜霜摧巖下蘭	어제 밤 서리가 바위 아래 난초에 내리니
病中秋思轉相關	병중에 가을의 온갖 생각으로 바뀌네.
天涯憂國三年淚	하늘가에서 나라걱정으로 삼년동안 눈물 흘렸고
客裏逢君一笑歡	객지에서 그대를 만나 한번 웃고 즐거웠네.
固謂亂離元有自	진실로 난리란 원래 까닭이 있는 것
那堪別恨太無端	기약 없는 이별의 한을 어찌 견디리.
臨分說與同心子	작별에 임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珍重風塵認舊顏	시끄러운 세상 몸을 소중히 하여 옛 얼굴 보전하시게. ⁵⁵⁾

이 시는 친구와 작별하면서 몸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도 그는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못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洪州牧使로 부임한 지 3년이 되었으면 바로 이몽학의 난이 일어난 해이다. 그래서 이 시 경련의 첫 구가 의미심장하다. 즉 난이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壬辰倭亂 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임금의 국정운영 부실과 리더십 부재, 신료들의 부조리와 분열, 백성들의 생활고로 인한 민심이반 등의 현 실태를 꼬집고 있는 것이리라.

「酬尹伯昭 次其韻」에서도 같은 내용이다. 고향에서 한가롭게 지내겠다고 마음먹고 있으면서도 나라의 위한 忠情은 여전하다.

邂逅郡齋冷	군재의 찬 방에서 만나니
青燈夜欲闌	푸른 등잔으로 밤은 깊어만 가네.
相知逾二紀	서로 만난 지 이십여 년이 넘었고
一別隔千山	한 번 이별 후에 온 산이 가로 막았네.
報效心雖切	국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비록 간절하나
衰遲鬢已殘	나이 늙어 귀밑머리 희어졌다네.
溪南十畝在	시내 남쪽에 작은 場圃가 있으니
歸占暮年閑	늘그막 고향으로 돌아가 한가롭게 살리라. ⁵⁶⁾

55) 위의 책, p.134(『晩全集』 1권, 「洪陽贈別李楊若 因次其韻」)

56) 위의 책, p.70(『晩全集』 1권, 「酬尹伯昭次其韻」)

尹伯昭와 이별한 지 20년이 넘어서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했겠는가. 밤이 깊어 가는 줄 모르고 그간 못 나눈 우정을 나누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국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晩全堂의 너리에 나라를 향한 忠情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林泉의 고향으로 내려와 자신이 설계했던 삶을 영위하고자 하면서도 충정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이다.

그 후 牙山의 대동으로 이주하여 한가롭게 살면서도 忠情을 잃지 않고 있다. 「溪邊獨遊」에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秋臺氣蕭瑟	가을 누대엔 기운이 쓸쓸한데
亭午獨吟時	한낮 되니 홀로 시를 읊을 때이라.
草樹人煙盡	숲의 인가엔 밥 짓는 연기 사라지고
兵戈世路危	전쟁 일어난 세상 위태롭구나.
丹心天北極	붉은 마음은 하늘 북쪽 끝에 있고
白首地南陔	백수의 늙은이는 남쪽의 지방에 있네.
自是身多病	여기에 있는 몸 병이 많기 때문이지
何曾明主遺	언제 임금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었는가. ⁵⁷⁾

布衣의 신분임에도 나라를 위한 忠情은 여전하다. 전쟁으로 위태로운 세상을 걱정하며 마음은 항상 임금을 향해서 있다.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결심으로 己亥年(1599)에 아산으로 집을 옮겼지만 나라에 대한 근심걱정은 벼슬의 자리에 있었을 때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충정은 그가 벼슬하는 동안 임금에게 상주한 글에서 역력하게 나타난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에 위해함을 받을 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계사년(1593)에 올린 「賊退後封事」에서 그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이다.

어찌하여 나라를 다스린 지 27년 사이에 정치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

57) 위의 책, p.74(『晩全集』 1권, 「溪邊獨遊」)

들의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 국가의 형세는 나날이 기울어지고 백성들의 생활도 나날이 곤궁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재변도 끝일 새 없이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있사오며 <중략> 이는 전하께서 비단 나라를 다스리려 하시던 당초의 뜻을 이루시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잃고 파천하심에 비웃음거리를 후세에 까지 남겼으니 비록 말세의 나라를 망친 임금과 그 부끄러운 덕이 같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⁵⁸⁾

앞에서 언급한 「應求言封事」에서도 그러했듯이 「賊退後封事」의 내용도直言하는 수준이 임금의 노여움을 사고도 남을 만큼 위태롭다. 여기에서 ‘國勢日以陵夷 民生日以困瘁’는 그래도 임금에게 상주할 수 있는諫言이라 여겨지지만 ‘貽譏後世’와 ‘亡國之君同其慙德’에 이르러서는 임금을 面駁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荀子』⁵⁹⁾의 「臣道」편에 보면 “명령을 따르고 군주를 이롭게 하는 것이 順이고, 명령에 따르면서도 군주를 이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諂이며, 명령에 거슬리더라도 군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忠이라.”하고 있는데, 만전당도 「應求言封事」에서 “신이 어리석고 천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외람되게 거친 글을 올려 국가의 中興과 更化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⁶⁰⁾라고 하고 있어 ‘忠’의 지극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나라를 향한 충정이 얼마큼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앞에서 보듯 만전당이 나라를 향한 충정이 일생토록 변함이 없다. 곧 오직 나라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主靜的 觀點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私利私慾이 없

58) 위의 책, p.244(『晩全集』 3권, 「賊退後封事」), “奈何二十七年之間 治效未著 人心未服 國勢日以陵夷 民生日以困瘁 天災地變 史不絕書 <중략> 是殿下非徒不能遂圖治之初志 其失國播越 貽譏後世 雖謂之與末世亡國之君同其慙德 未爲過也”

59) 순자가 지은 책, 그는 전국 시대 趙나라의 사상가(?BC298~?BC238)로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臣道」편에 “從命而利君謂之順 從命而不利君謂之諂 逆命而利君謂之忠”이라 논했다.

60) 洪可臣, 위의 책, p.322(『만전집』 권4, 「應求言封事」), “不揆愚賤 猥綴荒辭 冀補中興更化之萬一”

는 諫言에서, 그리고 그 충정을 실천하는 진정성에서 이러한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IV. 결론

만전당은 조선 중기의 혼란했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건과 마주칠 때마다 이를 회피하지 않고 맞서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데, 기복과 변화가 심한 세상을 살아온 만큼 生의 자취가 뚜렷하다. 그래서 그의 자취를 사안별로 묶어 기술하였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花潭 서경덕에서 翫靜 민순으로 이어지는 도통을 만전당이 계승하고 있다.

둘째, 정직을 신념으로 한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한 행동으로 구현하고 있다. 나라에 대한 배신과 뇌물사건을 소신과 원칙으로 처리하는 결단력을 보이고 있으며,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임금에게 荒言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는 평생을 청렴한 삶으로 일관하였으며, 그가 벼슬하고 있는 동안 보여준 혁신적 행정은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하다. 부여현감, 안산군수, 水原府使, 홍주목사 등 지방수령으로 부임해서 이룬 성과가 그 증거이다.

넷째, 己丑獄死, 壬辰倭亂, 李夢學의 亂 등 역사적으로 큰 사건과 마주치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충정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또한 만전당이 삶을 영위하면서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의 詩文을 통하여 읽을 수 있는데,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모두 主靜的 입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늘 자연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구가하고 있고 致仕 후 자연 속에 귀의하여 생활하면서 지극히 만족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둘째, 그의 여러 시를 통해 求道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道에 대한 의문을 「應求言封事」에서 풀 수 있었다. 이는 자기 몸을 살피고

사욕이나 과오를 다스려 이겨내는 것이어서 主靜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셋째, 「應求言封事」나 「賊退後封事」에서처럼 荒言을 서슴지 않은 것은 “명령에 거슬리더라도 군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충이라.”는 순자의 말처럼 그는 충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사의사욕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주정적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위에서 보듯, 정직, 청렴, 荒言(직언)과 귀거래, 구도, 忠情은 그의 私意私慾이 없는 정신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정신은 花潭, 習靜으로부터 이어받은 주정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답이 독자적으로 체계화한 主靜의 說을 습정이 이를 더욱 발전, 승화하였고, 晩全堂은 생활자체를 主靜에 바탕을 두고 이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參考 文獻>

『論語』

『荀子』

『선조실록』(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國朝寶鑑』(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吳希文, 『瑣尾錄』, 이민수 역, 을재클래식스, 2014.

李肯翊, 『燃藜室記述』(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李珣, 『石潭日記』(『大東野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李珣, 『栗谷全書』(한국문집총간 44~45집)

李 瀾, 『星湖全集』(한국문집총간 198~200집)

洪可臣, 『晩全堂洪可臣先生文集』, 한국예총아산시지부, 2006.

黃 赫, 『己丑錄』(『大東野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박을수, 『晩全堂洪可臣研究』, 글읽는들, 2006.

佐藤仁, 「이퇴계와 이연평에 대하여」, 『퇴계학보』 68호, 퇴계학연구소, 1990.

Abstract

Manjeon-dang Hong Ga-sin: Life Track and Orientation of His Life
/ Song Gi-seop*

Life of Manjeon-dang Hong Ga-sin has been a series of hardships and frustrations. He was not only at the center of political turmoil that was characterized by Literati Purge of 1589, Imjin-Jeongyu Waeran of 1592~1598, and the Rebellion of Lee Mong-hak, he also suffered greatly from poverty and poor health. Nevertheless, while enduring all the hardships in his official and private capacity, he left behind an exemplary record as an innovative administrator, a leader in the activities of righteous army during Japanese invasion, and in pacification of the Rebellion of Lee Mong-hak.

An illumination of his life track will make it readily available what he wanted to pursue throughout his life. In a reading of Man-jeon Jib --literary collections of his writings-- and the Annal of King Seon-jo, one cannot fail to discover traces of his honesty, integrity, and patriotism, and from the poems and literary essays he left behind, one can easily grasp his orientation of life, a genuine desire to return to nature, a thirst for Confucian learning, and patriotism that drove his official and private life. What follows is the result of an analysis of his life track and orientation of his life based on available historical writings and his literary works:

First, with regard to his life track, 1) Manjeon-dang inherited the legacy of Neo-Confucian learning that was transmitted from Hwadam Seo Gyeong-deok to Seupjeong Min Soon, 2) His uprightness based on honesty is expressed in a series of his official and private actions, 3) His entire life was characterized by integrity, and this quality is nowhere better illustrated

* Lecturer of Sun Moon Unvi. / sks4423@naver.com

than in his career as an innovative administrator. 4) His patriotism is revealed in a series of actions he has taken on such occasions as Literati Purge of 1589, Imjin Waeran, and the Rebellion of Lee Mong-hak.

Second, his orientation in life is revealed eloquently through his poems and literary essays as follows: 1) He always entertained his desire to return to nature while serving the country as an official, 2) His thirst for Neo-Confucian learning bordered on the realm of ju-jeong ('emphasizing tranquility'), 3) His loyalty to the King is nowhere better illustrated than in his forthright or straight statement.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examples, Manjeon-dang's honesty, integrity, forthrightness, longing for homecoming, quest for Neo-Confucian truth, and patriotism were based on genuine unselfishness, and the meaning of this spirit can be grasp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quility that was transmitted from Hwadam and Seupjeong. In this sense, his entire life can be regarded as grounded on a practice of tranquility principle (ju-jeong).

【Key words】 Hongga-sin, Manjeon-dang, Sunjo, Leemong-hak,
Joojeong-logy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7일, 게재확정일 : 12월 8일
